

고교생을 위한 사이언스 캠프 후기

주정훈

한국진공학회의 미래 회원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공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2012년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권 면,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장 유석재)와 같이 시행해오고 있다. 제1회 때에는 캠프 장소인 대전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강당의 최대 수용인원인 250명의 두 배 가까운 인원이 지원을 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학생의 부모님들로부터 애원에 가까운 호소 전화가 사무국으로 연일 빗발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최종 선발되었던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 그림 2와 같이 제주, 강원을 포함한 전국에서 모여든 것을 알 수 있고 입시를 앞 둔 3학년들의 호응이 높아서 우선적으로 선발해주기도 하였다. 네이버 등의 포털을 검색해보면 수시 입학 제출용 포트폴리오에 한국진공학회 사이

[Fig. 1] 제1회 고교생을 위한 사이언스 캠프 사진(K-STAR 견학)



<저자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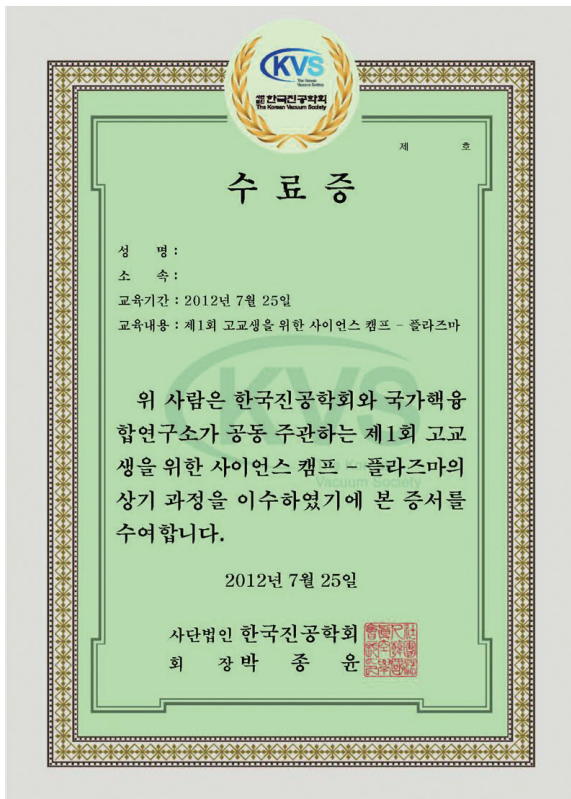


주정훈 교수는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KIST, GoldStar Electron 반도체 연구소를 거쳐 1992년부터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6, 2005-2006 미국 New York의 IBM T.J. Watson Research Center 객원교수, 2012-2013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현재 <플라즈마 융합 공학 대학원> 학과장, 한국진공학회 정회원(1993년~)이며 총무이사를 맡고 있다. (jhjoo@kunsan.ac.kr)

언스 캠프 참가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가 나가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학회가 주관을 하여 행사를 진행할 뿐 아니라 국내 최정상급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사들의 강의와 함께 거대 과학 시설인 플라즈마 핵융합 장치(K-STAR)의 견학과 더불어서 그림 3과 같은 근사한 수수료 발급이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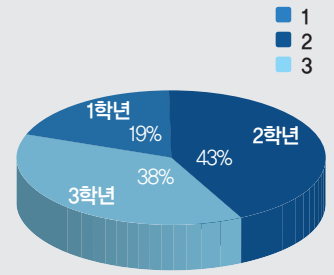
제1회와 2회에 이루어진 강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핵융합연구소 양형렬 박사 : 플라즈마 핵융합
- 국가핵융합연구소 유석재 박사 : 플라즈마 녹색 기술
- 군산대학교 주정훈 교수 : 플라즈마의 발생
- 삼성전자 황태형 박사 : 정보 기술과 플라즈마
- 광운대학교 박경순 교수 : 플라즈마의 바이오 응용



[Fig. 3] 제1회 고교생을 위한 사이언스 캠프 수료증

더불어 행사 참석 후기를 리포트의 형식으로 제출받아서 <베스트 리포트 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7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으니 회원님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는 바이다.



학년별	인원	비율
1	29	19%
2	64	43%
3	57	38%
기타		
합계	150	

지역	인원	비율
서울	34	23%
인천	7	5%
광주	2	1%
대구	3	2%
대전	2	1%
경기	52	35%
강원	4	3%
충남	9	6%
충북	8	5%
경북	13	9%
경남	5	3%
전북	4	3%
전남	7	5%
제주	0	0%
합계	150	

성별	인원	비율
남	94	63%
여	56	37%
합계	150	

[Fig. 2] 제1회 참여 학생들의 학년, 지역, 성별 구분